

4강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는 누구인가? (5장)

오늘의 포인트

- '38년된 병자'는 누구를 대변하는가?
- 은혜 없는 율법이 만든 율법주의 종교의 생명 없음
-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.

5장의 개요

5장은 유대인의 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한 일—38년된 병자를 고치심—과 이로 말미암아 촉발된 “저 사람을 고친 그는 누구인가?”라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. 결론은 ‘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’라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부합한다.

사건(1~9)

유대인의 명절 = 유월절은 아니고 오순절이나 초막절일 것이다.

양문 = 제사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. 성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.

베데스다 = 베이트(히, 집) + 헤세드(히, 은혜+사랑) = ‘은혜의 집’

베데스다 못의 병자들: 많은 병자 = (앞을 못 보는) 맹인, (제대로 걸을 수 없는) 다리 저는 사람, 혈기가 말라 (몸이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) 사람들

= 무력한 자들

= 전설, 풍문,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(3~4)

=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딜레마

= 종교, 철학, 선행에 기대어 살아가는,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

‘은혜의 집, 베데스다’의 원리: “[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]” (3b~4).

= “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”는 **은혜의 원리가 아니라, 율법의 원리에** 가깝다.

38년된 병자

38년 =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한 뒤, 방황한 38년(신 2:14)

이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 병에 걸린 후에(14절) 38년 동안 고생한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유사함.

예수님의 질문: “네가 낫고자 하느냐?”(6)

“네가 너를 네 무력한 모습 그대로 내게 맡기겠느냐?”(자기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 안에서 어떤 구원의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)

믿음을 요구하시는 질문!

38년된 병자의 대답: “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”(7)

자존심=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저항세력.

(주님이 누구신지 모른다. 천지의 창조주, 세상의 구주, 하나님의 아들, 그리스도)

주님의 반응: “그럼 **딴 사람을 고쳐주마!**”가 아니고, 명령을 하셨다. “**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.**”
= 권면, 충고, 제안이 아닌 **명령**
= 천지 창조 때 ‘**빛이 있으라**’고 명령하심으로 창조하신 것 처럼 명령하심으로 재창조를 이루신다.
= 절대자의 절대 명령이다.

병자는 뜰을 들이지 않고 이 명령 앞에서 “**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**” 걸어갔다(9).

결론/

성도는 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이 아니라, 그냥 은혜를 얻은 사람이다.

성도는 사랑할 수 없다.

교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.(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 말씀이 인도하지만,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반응하는 성도가 없다면 세워지지 않는다).

은혜 없는 율법

(5:10) ‘**유대인들**’ = 요한복음에서 ‘유대인’은 혈통적인 유대인들 모두를 가리키기 보다 **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당국자들을**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사용됨.

유대인들의 반응: 38년된 병자의 치유를 기뻐하기 보다, 안식일 규례로 시비를 걸어옴.

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시작됨(18)—안식일 규정 범함과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김.

계명에 대한 決疑론(casuistry)—‘의심을 해결한다’는 의미로, 윤리적 행위에 관한 각각의 경우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론

가령, 사람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약 1 km,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해서 밀 이삭을 비벼먹은 일화. 결의론에 의하면 밀 이삭을 손으로 따는 것은 추수,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에 해당된다.

결의론에 따르면, 38년된 병자는 안식일에 짐을 들어 옮겼고,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안식일 계명을 범하셨다.

인간의 행복을 위한 계명이(신 5:29; 6:24; 10:13) 사람을 죽이는 계명이 되는 이유,

- 1) 계명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=모든 계명은 은혜를 전제로 한다.
- 2)계명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=믿음 없이 (참된) 순종 없다.—>위선
- 3)계명이 지식을 버릴 때=영적 무지—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없다.

율법과 율법주의 구분: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율법주의가 된다.

은혜와 믿음과 지식을 잃어버린 율법

사랑이 율법의 완성(막 12:30~31; 롬 13:8,10; 갈 5:14)—주님의 새계명(요 13:34~35)

논쟁 — “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!”

그리스도의 신성 — 하나님의 아들 —에 대한 증거들

1.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(17).

유대전통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히 부르지 않았다.

하나님과 동격을 주장하는 의미임을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아들었다.

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주장은 창 2:3과 모순인가? 제7일에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쉬셨으나 여전히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.

계몽주의 시대 이신론(理神論, Deism)의 오해

2.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(19).

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림.

= 주님은 자신의 의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하기 쉽다.

이것은 주님의 인성의 결함이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, 주님은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= 나는 하나님과 의지에 있어서 동일하다!

(5:20) “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‘더 큰 일’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.”->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보이신다.

‘더 큰 일’= 나사로를 살리심, 주님 자신의 부활.

3.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(21).

아버지와 같이, ‘살리는 일’을 하시는데, ‘주권-자기의 원하는 자들’—을 가지고 행하신다.

아버지와 동일한 의지와 주권을 행사하신다.

4.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다(22~23,27).

하나님의 심판권 주장.

5.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(24).

참된 믿음 = 아버지를 믿고 아들의 말을 듣는다(순종).

유대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선언!

‘영생을 얻었고’ = 현재 누리는 것

‘심판에 이르지 않는다’ = 장래의 보장

6.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(25).

생명을 주고 살리는 능력에서 아버지와 동일하심.

주님의 음성/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(복음).

하나님의 증거(31~39)

증거의 내용: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 보다, ‘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’이라는 점이 강조

증거의 세 방편: 세례 요한, 주님이 하시는 일, 구약성경

1. 선지자의 말—세례 요한(33~35)

그러나 주님은 ‘사람의 말’을 의존하지 않으셨다.

요한의 말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함이었다.

사람들은 요한의 말에 ‘한때’ 거했다. ‘한때’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.

2. 표적—행동화된 말씀: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사 하게 하신 일/표적(36) —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

표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

니고데모의 고백: (3:2)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

3. 기록된 말씀—구약성경: 최고의 증거(37~39(~47))

최종적, 가장 확실한, 결정적인 증거—사람의 말보다, 어떤 기적 보다, 말씀의 증거가 가장 확실하다.

마르틴 루터: “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헛되게 읽는 것이다.”

이 모든 증거로 볼 때, 핑계할 수 없다.

권위의 문제

우리와 이 세상이 직면한 위기: 권위의 문제

주님과 유대인들이 인정한 최상의 권위: 성경

유대인들: 모세는 믿지만 당신은 믿을 수 없다.

오늘의 적용

-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은 38년된 병자다.
-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.
-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영광을 보라.